

“연진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

고데기에 데인 흔적, 그만하라고 울부짖으며 느끼는 모멸감, 꿈을 짓밟힌 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 가해자는 이런 폭력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도 뻔뻔하다.

28일 언론에 먼저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 9·10회는 오랜 시간 계획한 복수를 차분히 실행에 옮기는 문동은(송혜교 분)과 이에 뻔뻔하고 악랄하게 대응하는 박연진(임지연)의 대립을 긴장감 있게 보여준다.

연진을 마주한 동은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과거 학교폭력을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연진은 “나는 잘 못 한 게 없어. 전혀”라고 비아냥거리며 답한다. 연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서서히 드러나는 연진의 실체 앞에 혼란스러운 남명 도영(정성일)은 연진에게 동은이 무얼 그렇게 잘못했다고 묻지만, 연진은 “잘못을 해야 해?”라고 되물으며 별일 아닌 듯 대답한다. 자신 때문에 부서져 버린 동은의 영혼을 눈앞에 두고도 연진은 일말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

연진의 뻔뻔함에 동은의 사적 복수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그

9~16부 10일 공개
학폭 피해자 반격 시작
진실 드러나며 가해자 타락
'사이다 응징' 카타르시스

려진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란 결말은 가당치 않다는 연진의 비웃음은 동은을 복수의 소유물로 떠민다.

파트1에서 동은이 밑그림을 그려둔 복수는 파트2에서 구체화된다. 갑자기 사라진 손명오의 행방과 과거 동은에 앞서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윤소희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동은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으로 진실을 드러내면서 가해자들을 타락시킬지가 관전 포인트다.

암묵적으로 비밀을 감추는 가해자들 사이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진다. 마약을 한 사실을 들킨 김 노심초사하는 이사라(김희애)와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앞둔 최혜정(차주영)은 자기 살길을 찾기 바쁘고, 전제준(박성훈)은 연진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데려오기 위한 셈을 한다.

가해자들의 분열이 예견된 수순이라면 연진의 과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연 하도

영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돈과 권력이 있는 하도영은 복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인물이지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금금증을 높인다.

이렇게 목을 죄어오는 동은의 복수에 연진도 반격에 나선다. 동은의 든든한 조력자인 현남(염혜란)과 여정이 후반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을 끈다. 특히 의사로서 쥐었던 메스(수술용 칼)로 만나니 칼춤을 추겠다고 다짐한 여정은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연진을 마주한다.

또 동은과 여정이 보내는 시간은 동은이 잃어버린 일상의 따뜻함과 행복을 일깨우며 애잔한 마음이 들게 한다. 다만 텐트 속 포근한 느낌의 노란 불빛, 말랑말랑하게 녹은 치즈에 빵을 찍어 먹는 풍류 등 복수극에 다소 생뚱맞은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로 극의 몰입감을 깨뜨리기도 한다.

파트2는 파트1보다 속도감 있고 긴장감 높게 가해자들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 극본을 쓴 김은숙 작가가 언급한 '사이다' 응징은 동은의 복수가 완성되는 후반부에서 쏟아지며 카타르시스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더 글로리'는 파트1·2로 나뉜 16부작으로 파트2(9~16회)는 오는 10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스포츠 감동’ 스크린서 한판 승부



‘리바운드’

‘더 퍼스트 슬램덩크’ 흥행돌풍에 극장가, 스포츠 영화 개봉 앞뒤 농구·배구·복싱 등 소재도 다양

3월에 접어들며 봄기운이 한층 완연해지면서 극장가 입성을 기다리는 스포츠 영화들이 대거 몰입기에 나섰다. 레트로 열풍을 몰고 온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신기록 경신을 향해 질주하는 가운데 또 다른 슬램덩크의 감동을 선사할 농구 영화들이 개봉 대기열에 올랐다.

◇ ‘슬램덩크’ 열기 이어갈까… ‘에어’ ‘리바운드’ 골대 정조준

올해 초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달 27일까지 약 360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1990년대 원작 만화 ‘슬램덩크’를 애장했던 30·40 세대가 흥행 가도를 열어젖혔다면 20대가 개봉 중반 이후 힘을 보태면서 장기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슬램덩크’의 열기를 이어갈 기대작으로는 내달 개봉을 앞둔 ‘에어’다. 1980년대 중반 쫓겨야 했던 나이키가 당시 NBA 신인이었던 마이클 조던에게 모든 것을 걸며 게임체인저가 된 성공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는 신인 선수를 앞세운 나이키 마케터의 승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각각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는 전통적인 스포츠 영화의 공식에 따른 작품이다.

개성 넘치는 코치와 선수 6인이 ‘물수패’의 쓰라린 과거를 뒤로하고 전국고교 농구대회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장면을 스크린에 올렸다. 최악체로 평가되던 농구팀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슬램덩크’의

감동 코드와 맞닿아있다. ‘리바운드’ 개봉은 4월로 예정돼 있다.

영화 ‘1승’은 단 한 번도 성공을 맛본 적이 없는 배구 감독이 단 1승만 하면 되는 여자 배구단을 만나면서 도전에 나서는 이야기다. 송강호, 박정민, 박명훈, 장윤주 등 출연진이 신구 조화를 이루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제52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작품은 “흥행을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 영화다. 배우들의 연기 훌륭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국내 개봉일은 미정이다.

◇ 링 위의 뜨거운 대결 ‘크리드3’… 스크린 향해 뒹구는 육상 영화들

화끈한 복싱영화를 기다렸다면 영화 ‘크리드3’는 기대가 헛되지 않을 작품이다. ‘록키’의 스피노프 ‘크리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두 친구의 격한 갈등을 링 위로 끌어올리며 현실감 넘치는 복싱 경기를 선사한다.

랩 음악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수들의 훈련, 경기 출전 장면 등은 또 다른 매력이다.

진신규의 첫 단독 주연작 ‘카운트’가 복싱을 주된 소재로 삼으면서 휴먼 드라마에 초점을 맞췄다면 ‘크리드3’는 복싱 그 자체에 연출의 무게를 뒀다. 선수 간 정교한 힘이 돋보이는 연타 장면은 관람 포인트다. 상영절인 1일 극장에서 첫 관객을 만난다.

추석 연휴 개봉이 기대되는 ‘1947 보스턴’은 강제구 감독의 마라톤 영화다. 광복 이후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첫 국제 마라톤 대회 출전기를 토대로 만들었다.

하정우가 손기정 선수 역을 임시완, 배성우는 각각 서윤복, 남승룡 선수로 분한다. 일제 강점기 때 우승을 하고도 본인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애환, 되찾은 조국에서 국제 레이스 무대에 나서는 이야기가 섬세하게 그려진다. /연합뉴스

싱글대디 가족 성장기

KBS ‘금이야 옥이야’ 27일 첫 방

KBS 1TV는 새 일일드라마 ‘금이야 옥이야’ (사진)를 오는 27일부터 방송한다. 28일 밝혔다. ‘금이야 옥이야’는 자식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 금강산과 입양아인 옥미레가 주인공이다. 아이를 위해 반찬가게 사장과 요양보호사로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사는 아빠 금강산 역은 배우 서준영이 맡는다.

황동후드 집안에 입양된 입양아이자 미술학원 선생님으로서 다부진 꿈을 펼쳐나가는 옥미레 역에는 윤다영이 캐스팅됐다. 김시후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이면에 냉정함을 숨기고 있는 동주혁을, 최종환은 황동후드 사장 동규철을 연기한다.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2015) 등을 연출한 최지영 감독과 ‘꽃길만 걸어요’ (2019)를 집필한

채혜영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제작진은 “부성애라는 새로운 소재로 색다른 가족의 형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7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